

<2015.11.19.>

奎北日報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008면 자치시대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용역 최종보고

고창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군은 환경부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성규 기자



고창군은 18일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운곡습지를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보고회에선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 전략 등이 보고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18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고창 운곡습지 브랜드화·인프라 확충해야”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18일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 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

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을 안내했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라 불리울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 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으며 고창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

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이곳을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 용계마을과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생태관광은 환경부와 전북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이를 토대로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육성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1@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가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우수자원 발굴·브랜드화 등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발전전략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11.3.14)과 랍사르습지(‘11.4.7)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라 불리울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생태관광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환경부와 전북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군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 용계마을과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고창군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용역 최종보고회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 육성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딩,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 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고창=김준원기자



고창군이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사업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1번지 육성

자원보존 지속가능한 친자연적 관광지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고창군이 운곡습지를 전국 대표 생태관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

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라 불릴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 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생태관광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환경부와 전북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군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 용계마을과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사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자연·사람 행복하게 개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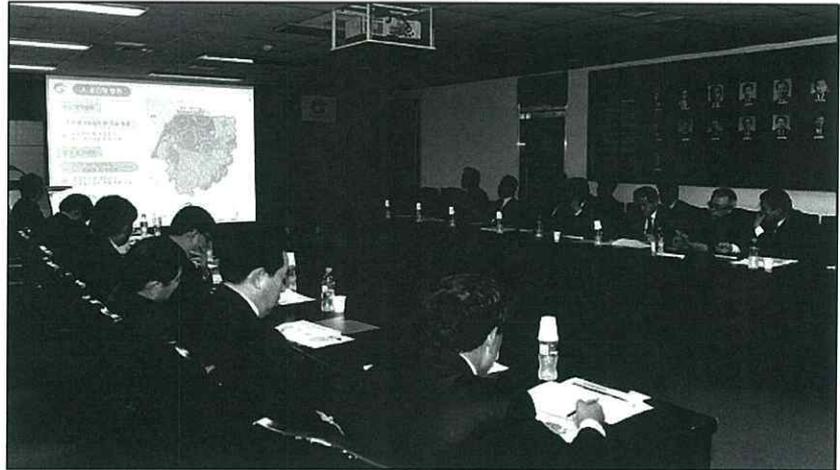
전국 대표지역으로 육성 생태자원 보전하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돼야

고창군이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제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고창군이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11.3.14)과 람사르습지(‘11.4.7)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라 불리울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 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

(寶庫)다.

생태관광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환경부와 전북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군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 용계마을과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운곡습지, 국가대표 생태관광지로

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브랜드화·인프라시설 확충 등

고창군이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지난 18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라 불리울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 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생태관광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

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환경부와 전북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군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 용계마을과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관진 기자

전주일보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010면 지역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용역 최종보고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된 최종 보고회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와 관련, 김진술 부 군수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고창 운곡습지, 전국 생태관광대표지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우수자원 발굴·인프라 확충 등 보고

고창군이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 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



고창군이 18일 군청상황실에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11.3.14)과 란사르습지(’11.4.7)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라 불리울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 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고창=김종성 기자 · kjs56730@daum.net



18일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고창군 제공>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지로 키운다

고창군이 국가습지 보호지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대표 생태 관광지역 육성을 본격화한다.

고창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생태 관광지역 육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운곡습지는 전북지역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전북도 1

시군 1생태관광지로도 지정된 곳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을 통해 ▲운곡습지 주변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우수자원 발굴 및 브랜화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



【고창=뉴스시스】 김종호 기자 =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전북 고창군이 핵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운곡습지를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군은 18일 김진술 부군수와 간부공무원,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 등이 나왔다.

또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과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등이 수립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가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도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비무장지대(DMZ)라 불릴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다량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

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고창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임과 동시에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의 대표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eun6685@newsis.com

'남한의 DMZ 고창 운곡습지'...생태관광 1번지로 육성



전북 고창군 운곡습지 © News1

"남한의 DMZ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1번지로..."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김진술 부군수와 각 부서장, 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가 발표됐다.

보고회에서는 생태관광지인 운곡습지에 대한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딩,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8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김진술 부군수와 각 부서장, 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



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News1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은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운곡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11.3.14)과 람사르습지(’11.4.7)로 지정됐으며 남한의 DMZ라 불리울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특히 생태관광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환경부와 전북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한편, 군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 용계마을과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제철 기자(jcpark@)

고창군, 운곡습지 '전국대표' 생태관광지 육성 '심혈'



(고창=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8일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는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는 도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 관광지역이면서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아울러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습지보호지역(2011년3월14일)과 람사르습지(2011년4월7일)로 지정된 운곡습지는. 남한의 DMZ라 불리울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이에 생태관광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 자연적인 관광으로, 환경부와 전북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군은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성공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아산 용계마을과 전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 전국 제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고창군, '운곡습지 최종보고회' 개최



(사진= 고창군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조준수 기자= 전북 고창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진술 부군수와 실과소장, 한국생태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도 내 최초로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생태관광지역이면서 도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운곡습지를 전국 생태관광 대표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운곡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마을의 주요자원 및 현황 조사, 국내·외 생태관광 운영사례를 포함해 생태관광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우수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보급, 생태관광에 필요한 기본인프라 시설 확충, 주민교육 및 홍보방안, 지역주도의 생태관광 추진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생태관광 발전전략 수립 등이 보고됐다.

김진술 부군수는 “생태관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현명하게 이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이 되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운곡습지는 국가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됐으며 남한의 DMZ라 불릴 만큼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으로 약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생태관광은 자연 생태자원의 보전과 함께 현명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관광으로 환경부와 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조준수 dynewsk1@naver.com

<저작권자 © 동양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